

우리나라 경영학의 교수방법에 관한 탐구

김 기 영 *
김 현 **

우리나라 경영학은 상당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수방법의 구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수방법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또는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방법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교육목적과 교수방법 등의 적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창의적 학습을 위한 교수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영학의 교수방법에 관한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학습방법은 다양한 구성요소와 유기적인 관련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고전적인 교수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교수의 역할과는 달리 교수목적은 여전히 지식의 단순한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호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교수방법이 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합한 교수방법의 개발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도 타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는 교수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갖고 열심히 강의하려 해도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조용하고 한 학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한두 번의 질문밖에는 나오지 않는 수업환경을 불평하는 교수가 많다. 또한 사례연구가 좋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준비는커녕 묻는 말에 대답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례연구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결국 교수 혼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강사

자 강의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사례연구를 포기하거나 도입을 망설이는 교수가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생측에서도 불평은 마찬가지이다. 해묵은 강의노트를 가지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수강하고 있으나 결국 배운 것은 별로 없고, 배웠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지는 더욱 알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모든 과정을 끝내고 좋은 성적을 받아 졸업하는 것이며 그것을 강의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과제이다. 특히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 구미 선진국의 교수방법은 MBA과정에서 잘 구현되었듯이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능력은 훈련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으로 믿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개념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교수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예컨대 상호토론방법, 사례연구방법, 시뮬레이션 등의 교육방법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방법들이다. 우리나라 교수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교수가 된 경우도 우리나라 경영학 교실에서는 그 효과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연유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이 역사적으로 40년을 넘어서는 장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교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우리 경영학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나라 경영교육이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아직도 1950년대 초창기 시절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교육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의 변천, 교육이념의 변화와 같은 엄청난 변화에 비하여 볼 때 경영학 교육의 내용에는 다소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영학 교육방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방법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경영학 교수방법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영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울러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학 교수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첫째, 교수방법의 개념적 틀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영향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교육목적과 교수방법은 얼마나 상호 적합한 것인가?

셋째, 창의적 학습에의 도전은 교수의 역할 면에서 어떤 본질적 과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교수방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문헌연구에 의하여 수행한 다음 연구의 모형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하여 경영학 교수들에게 중요한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이론적 틀에 맞추어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 교수방법의 개념적 틀

오스벨(Ausubel, 1963)에 의하면 교수·학습, 즉 가르친다는 것은 곧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의미 있게 수용·통합시켜서 그 지식의 구조가 자신의 것이 되고(內面化) 그가 그것을 자유로이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면화 또는 의미 있는 학습(meaningful learning)이란 외부세계의 잠재적·논리적 의미가 한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수용·병합되어 개별화된 심리적 의미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 안에서 볼 때 교수방법은 가르친다는 교수행위의 전과정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교수행위의 과정이 어떤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교수방법은 교육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교수방법의 유형별 특징과 그 개념적 틀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방법의 구조와 구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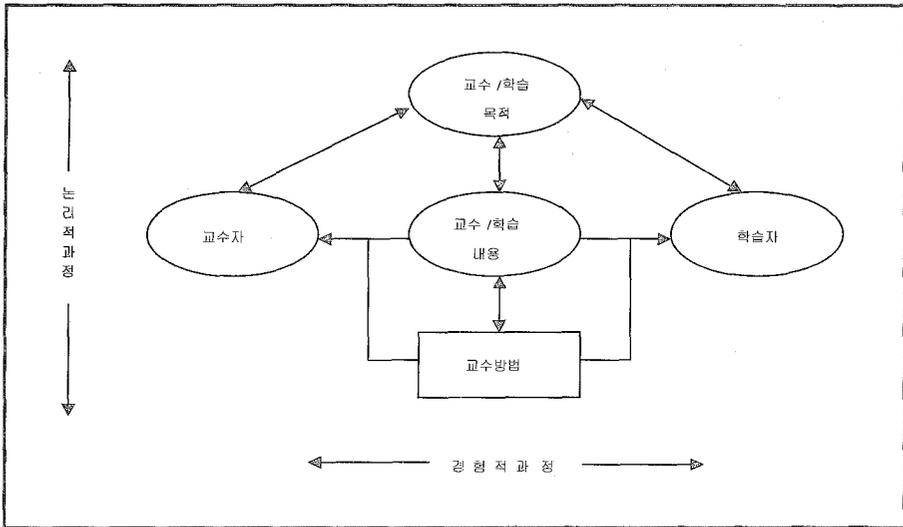
교수방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왔다. 교수방법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일부 요소를 의미하며 기술적 측면과 인성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교수방법의 탐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그림 1>은 최근 널리 쓰이는 교수방법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개념적 틀을 나타낸 것이다.

교수·학습은 무엇을 위하여(목적), 누가(교수), 무엇으로(내용), 누구를(학습자), 어떻게(방법), 그리고 어디서(환경) 가르치고 배우는지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방법은 따라서 논리적으로 목적과 적합하여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어지는 경험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 모든 요소들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하나의 유기적 구성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교수방법의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



(1) 교수·학습 목적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으로 되어있고 1968년에 제정공표된 국민교육헌장은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의 세 가지 지표로 되어있다. 이것은 교육받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의 목적 즉 교육목적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변해왔다. 미국의 교육목적에 대한 온스타인과 밀러(Ornstein & Miller, 1980)의 규정은 시대변천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19세기말까지는 종교적으로 강인한 청교도정신의 이상적인 인간이 목표였으며 교수방법은 철저한 지식주입이었다. 20세기 초에 와서는 개인차이를 존중하는 창의적 인간,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과학적, 지적 인간으로서 교수방법은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인본주의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인간형을 추구하게 되어 교수방법도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식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교수방법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높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여 학습자 행동에 대한 교수자의 통제가 약화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조이스와 웨일(Joyce & Weil, 1972)의 교육목적과 교수방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교육목적을 인지능력 개발과 문제해결, 사회성 개발, 개개인의 자아개발, 행동수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 또는 인성개발의 관점에서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볼 때 교수·학습 즉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

할 수 있다(이성호, 1995).

첫째, 지식과 개념의 전달, 둘째 정보의 조작과 처리를 전제로 하는 문제해결 능력, 셋째 지각능력이나 창의력의 훈련, 넷째 지각능력이나 독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교정 다섯째, 사회적·대인적 관계 개발 등이 그것이다.

경영학의 경우 해당 분야의 내용, 즉 구체적 지식과 개념 또는 기법을 이해시켜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둘째는 경영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판단력을 지닌 사람을 훈련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이며, 셋째는 해당분야의 단순한 지식이나 기법보다는 인지하고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훈련하며 넷째는 인지능력이나 독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교육목적으로 삼는 경우이다.

위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지적개발(cognitive development)과 정의적개발(affective development)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세 가지는 전자에 속하고 뒤의 두 가지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수자·학습자·내용과의 관계

교육과정의 구조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횡적으로 인적요인과 교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연히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 교수방법이 있는가 하면 교육내용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람중심 교수방법은 다시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으로 나눈다.

교수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수의 능동적이고 절대적인 지도력하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두 결정짓게 되므로 학습자는 피동적으로 교수의 권위와 의견에 좌우된다. 학생중심의 지적개발, 또는 정의적 개발 즉 인성적·사회적 발달을 전제로 하는 교수방법은 학생과 교수자간의 상호간 협력의 공동학습이 가능하다.

교수내용 중심의 교수방법은 주로 교사가 사전에 짜여진 교수내용을 철저히 구조화하여 개념, 방법, 이론 등과 같이 정돈된 내용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달하고 배우는 경직된 교수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내용 중심의 교수방법을 택하는 경우 교수자의 모습은 전문가, 형식적 권위자, 사회화의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학습자 위주의 교수방법에서는 교수자는 조정자, 이상적 자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는 권위적, 방입적, 민주주의적인 역할로 인식될 수 있고 또한 교수자의 인성적 특성에서 볼 때 철학자, 이웃지도자, 기술적 장인, 직장상사, 또는 운동코치와 같은 모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성호, 1995)

학습자의 인성적 특징이나 능력, 기회, 학습태도에 따라 이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방식이 다르게 요구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은 교사중심 교수방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학생은 학습자중심 교수방법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해리슨(Harrison, 1982)은 학생들의 욕구가 세 가지 수준으로 발전하며 교수방법이 여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첫째는 물리경제적 욕구, 둘째 사회적 욕구, 셋째가 자아실현 욕구이다. 필수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을 한다는 사실은 물리경제적 욕구를 근거로 한 태도를 유발하므로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순종하게 된다. 친구나 동료를 사귀는 사회적 욕구로 수강할 때 교수자와 동일시하는 교수과정이 되며 끝으로 자기 앞날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아실현 욕구에서는 교수자와 공동학습자로서 개방적 태도로 수업에 임하여 비로소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선택과목을 가르칠 때와 전공필수과목을 가르칠 때의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다르며 선택과목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3) 교수·학습 환경

교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환경이다. 거시적 환경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학교교육의 지평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대학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교수·학습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없는 큰 영향변수로 작용하였다. 졸업정원제, 민주화 운동, 폭력시위, 등록금 억제, 정부의 엄격한 학사통제 등이 그것이며, 경제사회적 환경으로는 질적인 학습보다는 졸업장을 위주로 한 양산적 교육행위가 중요시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시적 환경으로서는 첫째로 학교내 환경을 들 수 있다. 학교 운영체제가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이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둘째로 학습자들 상호간의 집단환경을 들 수 있다. 성별, 지방별, 연령별, 경제적 능력 등 학내 학생집단의 특성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중요한 것은 교실환경인 바 교실내 권력구조, 대화방식, 학생들 간의 규범, 전통, 응집력, 심지어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창문, 교육시설 유무, 색깔, 컴퓨터 시설 등이 교수방법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2) 교수방법의 유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교수행위 과정에서 본 교수·학습 목적, 교수자, 학습자, 내용, 환경 등은 결과적으로 교수방법에 영향을 줌으로서 여러 가지 유형의 교수방법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성호(1995)에 따르면 교

수방법은 고전적·지력개발·상호작용 촉진·개별화·공학적·치유적 교수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전적 교수방법 : 강의법과 발문법(發問法)

이 방법은 학습자의 인성적 개발이나 사회적응 보다는 지적훈련에 목적을 두고있는 강의법과 문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방법은 교육을 교과내용 또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며 따라서 교육은 교수자가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정서, 가치, 느낌 등으로부터 분리된 기본적 지식이나 개념 또는 기법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교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학습 태도를 갖게 된다. 교수방법은 해당분야의 내용 즉 지식과 개념 및 기법을 이해시키는 강의방식이나,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종용하여 그 효과를 높인다. 발문법은 그 발문의 목적과 학생들의 지적능력 또는 인식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2) 지력개발 교수방법 : 탐구법과 창의력 개발

지력개발 교수방법은 지적인 과정(intellectual process)의 개발에 목적을 둔다. 사고력을 훈련시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수방법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탐구법과 창의적 사고력 개발과 같은 방법이 지력개발 교수방법의 대표적 형태이다.

탐구법 : 탐구법은 어떤 특정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의미있게 수용시킴으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Cognition)란 아는 행위(act of knowing)를 통칭한다. 따라서 무엇을 어느나 하는 내용보다는 앎으로 이르는 능력 즉 '과정으로서의 지적 기능'을 말한다.

여기서 '의미 있게 수용 또는 학습' 한다는 말은 외부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논리적 의미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안에 들어와 그 사람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의미상태로 수용병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학습(learning)은 학습자의 현상적 의미로 내면화(internalization)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용학습(reception learning)이라 한다. 또한 학습 내용이 최종 형태로 학습자에게 주어져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짧게 되는데 수용학습과는 달리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 또는 탐구학습의 경우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내용을 발견하거나 문제해결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사후적으로 내면화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냥 무조건 외워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에 유의미하게 수용되는 내면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전달을 기계적 학습이라 하며 이는 위의 수용학습 및 발견학습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탐구과정은 ①문제의 인식 ②문제의 정의 ③가설 ④탐색 ⑤증거 분석 ⑥일반화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자는 일종의 코우치나 증재자의 역할이며 교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력 개발 : 사고는 그 능력의 깊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이성호, 1995). 가장 낮은 수준의 사고인 신념(belief)으로부터, 기억(memory), 이해(understanding) 그리고 제일 높은 능력이 바로 듀이(Dewy)가 제시한 반성(reflection)수준의 사고로서 이른바 창의적 사고를 의미하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뜻한다. 신념, 기억, 이해의 수준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수준이라면 반성사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How to think)'를 중시하는 것이다.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된다(Harrison & Bramson, 1982).

- ① 종합적 사고(Synthesist) :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추론을 대상으로 하며 갈등, 변화에 관심을 갖고 최적 문제해결을 추구한다.
- ② 이상적 사고(Idealist) : 포용과 타협을 통한 미래지향적 목표 추구.
- ③ 실용적 사고(Pragmatist) : 일의 유용성을 중요시하고 구체적이고 유통성 있는 대책 추구.
- ④ 분석적 사고(Analyst) : 논리적 전개와 연역적 논리로 객관적 문제해결과정을 중시
- ⑤ 사실주의(Realist) : 실제로 경험한 것을 중요시하고 구체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귀납적 사고과정을 중요시한다.

창의적 사고력은 지적구조의 모형을 토대로 내용, 작용, 결과의 변수들을 결합한 사고의 영역을 정형화하여 교수방법을 개발하려는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귀납적 교수방법,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유추(analogy), 속성 열거(attribute listing), 형태학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등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고력 훈련기법들이다.

3) 교수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교수방법은 교수·학습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교수방법의 탐구는 교수·학습의 목적, 교수자, 교수내용 그리고 학습자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상호 연계된 구조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수방법이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수방법과 교육과정 요소와의 관계

교수방법	교육과정 요소		교수·학습 목적	중점 요소	교수자 역할	학습자 태도	교수·학습 환경
	주도적 강의법	발문법					
고전적 교수방법			지식의 전달과 제시	교육내용 중심 및 교수자 중심	전문가 권위자 전달자	수동적 수순	교수자지향
지력개발 교수방법	-탐구법 -강인력 개발법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시정각		-인지능력 향상 -문제해결 사고 -창의적 사고 -훈련	교육내용과 학습자 중심	전문가 조경자 교우치 공동학습자	내면화	학습자지향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교수방법	-스그룹 도입법 -발표연기 -역할연기		사회적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	관계형성자 공동학습자 인간조정자	동일시	상호작용 간접경험
치유적 교수방법	-행동수정 -표수법 -심리치유 -교수법 -구두표현 -운동치유 -훈련		-지각능력, 이상 -동해력, 이상 -상태 교정 -진단과 치유	학습자 중심	전문가 진단자 교정자	내면화	직접경험 학습자지향

3.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교수방법

앞장에서 설명한 이론적인 개념의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영학 교수방법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12개 대학의 교수 3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1996년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응답한 112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공분야를 7개로(인사/조직, 생산/OR, 재무/회계, MIS, 마케팅, 국제경영, 경영전략/경영일반) 나누고 회수된 응답자 수에 대한 항목별 평점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준화된 평점을 산출하였다. 전공분야(과목의 전공분야)별로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1개 과목을 선정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질문하였으며 전공분야별 응답자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1) 교수목적에 나타난 특징

교수·학습 목적을 묻는 5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전공분야별 표본분포

과 목	빈 도	백 분 율
인사/조직	13	11.6 %
생산/OR	15	13.4 %
재무/회계	45	40.2 %
MIS	9	8.0 %
마케팅	16	14.3 %
국제경영	9	8.0 %
경영전략/경영일반	4	2.7 %
Missing Case	1	1.8 %
합계	112	100 %

〈표 3〉 교수·학습목적의 요인분석 결과

	지적개발 요인	정의적개발 요인
지식전달	0.046	-0.412
인지능력 개발	0.747	0.297
문제해결	0.874	-0.158
사회,대인관계 개발	0.261	0.831
지각능력 교정	0.040	0.820
아이겐 값	1.181	1.858
전체분산 설명력	23.63%	37.16%

이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제시된 지적개발(cognitive development)과 정의적개발(affective development)로 유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학 교수들이 교수하는 목적을 전공분야(분야별 과목)별로 응답한 내용을 보면 <표 4>와 같다. 교수·학습 목적을 지식전달, 문제해결능력의 개발, 인지능력의 개발, 지각능력의 이상상태 교정,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적, 대인적 관계개발로 구분하였다.

5점평가 기준으로 할때 지식전달이 4.5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문제해결, 인지능력개발, 사회대인관계 개발, 끝으로 지각능력 이상상태 교정의 순서이다. 목적항목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지 않고 중요한 정도를 5점 평점으로 모든 항목을 평가하였다.

<표 4> 전공분야별 교수목적

전공 \ 교수목적	지적개발			정의적개발	
	지식전달	인지능력	문제해결	사회,대인관계	지각능력
인사/조직	4.62	3.77	4.23	3.62	3.00
생산/OR	4.27	3.67	4.40	3.07	2.67
재무/회계	4.57	3.11	4.13	2.71	2.62
MIS	4.56	3.56	3.67	3.11	2.56
마케팅	4.56	3.93	4.38	3.56	2.81
국제경영	4.22	3.13	3.89	3.89	2.67
경영전략/경영일반	5.00	4.25	4.50	4.25	3.00
평균	4.52	3.46	4.17	3.17	2.66

전공분야별로 볼 때도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회계의 순으로 엄격한 지식 전달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인지능력개발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되어있다. 경영전략/경영일반이 지식전달을 5점만점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문제해결 또는 창의력개발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 과목의 성격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문제해결능력이나 인지능력개발은 경영전략, 생산관리, 마케팅분야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에 MIS, 국제경영, 재무/회계에서는 평가점수가 낮았다.

2) 교수방법의 특징

<표 5>는 <표 1>에서 제시된 교수방법과 구체적인 학습수단을 모형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교육목적에서 나타난 바를 연관시켜볼 때 발문식 고전적 교수방법이 모든 분야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표와 사례연구, 소그룹토론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비디오 자료와 역할연기 방법도 도입되고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다.

주도적 강의는 성격상 발문식 교수방법과 같은 유형의 교수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도 허용치 않는 완전한 교수의 일방적 강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이 특이하다. 그래도 회계/재무 분야와 국제경영이 아직도 주입식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례연구는 경영전략, 마케팅이 가장 많고 MIS가 가장 적다.

〈표 5〉 전공에 따른 교수방법(%)

전공 \ 교수방법	주도적 강의	발문	사례 연구	비디오 자료	소그룹 토론	발표	역할 연기	시물레이션
인사/조직	15.4	88.9	76.9	69.2	100	100	23.1	0
생산/OR	26.7	100	64.3	53.3	60.0	86.7	26.7	35.7
재무/회계	44.4	100	46.7	34.8	34.1	51.1	22.2	8.7
MIS	44.4	100	44.4	55.6	33.3	55.6	33.3	22.2
마케팅	20.0	91.7	92.9	62.5	68.8	93.8	25.0	6.3
국제경영	50.0	100	55.6	44.4	44.4	77.8	33.3	11.1
경영전략/경영일반	0	100	100	50.0	75.0	100	25.0	0
평균	33.9	97.1	61.1	48.2	52.7	72.1	25.2	11.7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 전략 분야가 국제경영, 재무/회계, MIS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문제해결능력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사례연구나 토의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토의법, 발표, 역할연기 등의 방법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교수목적에 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력개발(문제해결, 창의적 사고)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물레이션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OR, MIS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을 뿐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역할연기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목적과 방법의 적합성, 다시 말하면 교수방법의 타당성은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교수방법에서 지력개발 교수방법으로 크게 관심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큰 추세이다.

3. 교수자의 역할

교수목적과 방법이 결정되면 교수자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유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교수자의 이상적인 역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아야 한다. <표 6>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표 6〉 교수자의 역할

전공 \ 교수자역할	지도자	공동학습자	코우치	진단자	합계
인사/조직		4 (30.8%)	9 (69.2%)		13 (12.5%)
생산/OR	2 (14.3%)	1 (7.1%)	9 (64.3%)	2 (14.3%)	14 (13.5%)
재무/회계	14 (33.3%)	6 (14.3%)	20 (47.6%)	2 (4.8%)	42 (40.4%)
MIS	4 (44.4%)	2 (22.2%)	3 (33.3%)		9 (8.7%)
마케팅	2 (14.3%)	2 (14.3%)	9 (64.3%)	1 (7.1%)	14 (13.5%)
국제경영	1 (12.5%)		4 (50%)	3 (37.5%)	8 (7.7%)
경영전략/경영일반	1 (25%)	1 (25%)	2 (50%)		4 (3.8%)
합계	24 (23.1%)	16 (15.4%)	56 (53.8%)	8 (7.7%)	104 (100%)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코우치와 같은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53.8%) 지도자적 역할에 대한 의견은 23.1%로 두 번째이고 공동학습자의 역할은 15.4%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사, 생산, 마케팅 분야가 교수의 역할을 지력개발 교수방법에 적합한 코우치와 같은 사람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있다. 지도자라는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야는 재무/회계, MIS 등이며 공동학습자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조직, 경영전략 분야이다. 교수방법과 교수자의 역할이 개념적이나마 비교적 잘 어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수목적은 모든 분야에서 지식전달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수의 역할은 코우치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목적에 부합된 교수의 역할로는 적합치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 7>과 같이 교수·학습목적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지식전달과 같이 지적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도자나 공동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사회,대인관계 개발이나 지각능력 개발과 같이 정의적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공동학습자, 코우치, 진단자의 역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 요약과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우리나라 경영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수방법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먼저 교수·학습 과정, 즉 교육과정의 탐구를 위한 이론적 구조를 살피는데 있었고, 둘째로는 우리나라 경영 교수 학습방법이 교육목적, 교수자, 학습자, 교육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를 그 개념적 틀을 토대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발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교수·학습목적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

교수·학습목적	교수자 역할				F 값	유의수준
	지도자	공동학습자	코우치	진단자		
지식전달	4.75	4.75	4.43	4.00	2.77	.046
인지능력 개발	3.17	3.94	3.45	3.38	2.35	.077
문제해결	3.88	4.31	4.25	4.13	1.04	.379
사회·대인관계개발	2.29	3.13	3.56	3.25	8.31	.000
지각능력 교정	2.13	3.00	2.76	2.88	3.15	.028

* 던컨(Duncan)의 다중범위분석 결과 유의적(p=.05)차이가 있는 집단

첫째,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목적, 교수자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교수할 내용 등과 유기적 관련하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경영학은 가르치는(teaching) 학문이기보다는 학습하는(learning)학문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식전달의 고전적인 교수방법을 탈피하여 창의력 -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지력개발 교수방법이나 사회적응 교수방법으로 더 빨리 변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아직도 고전적 강의와 발문식 교수방법이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지력개발 교수방법으로 변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수목적과 방법이 일치하는 타당성은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 모든 분야에서 목적은 지식전달이 가장 중요시되는 반면, 교수자의 역할은 코우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목적과 역할이 양립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넷째, 마케팅, 생산, 인사와 같은 분야는 비교적 문제해결능력, 지력개발형 방법과 코우치와 공동학습자와 같은 역할을 강조한 반면 회계, 재무, MIS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식전달의 고전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지력개발 방식이나 사회적응 교수방법을 빨리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례연구사용, 시뮬레이션, 비디오등 기법에 맞는 교육자료들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교육환경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수용학습과 발견학습단계를 유도하여 학습의 유의적 내면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들에 대한 훈련이나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학회에서 교수 방법에 대한 교수자들의 정기적인 세미나, 워크샵, 그리고 교수용 자료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상용할 수 있는 노력

이 시급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극히 한정된 일부 대학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전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상황보다는 비교적 교수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을 고의적으로 표본추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많은 폭으로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또한 국내 대학이 가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요인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성호(1995), 「교수방법의 탐구」, 서울, 양서사.

Ausubel, David P.(1963), *The Psychology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An Introduction to School Learning*, New York, NY, Grune & Stratton, Inc.

Harrison, Allen F. and Robert M. Bramson(1982), *Styles of Thinking*, New York, NY, Anchor Press.

Joyce, Bruce and Marsha Weil(1972), *Models of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Ornstein, Allan C. and Harry L. Miller(1980), *Looking into Teac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